

도로공사, 포스트 코로나 일상 회복 위해 사회공헌 활동



1 한국도로공사 김천사옥 2 도로공사 사내 릴레이 헌혈 캠페인

한국도로공사는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

코로나 재확산 대응 지원

도로공사는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방역 의료진에게 아이스 조끼 1천400여 벌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 초 지역 25개 보건소 의료진에게 간식과 생필품 꾸러미 1천 개를 전했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자 지역 노인·장애인 요양소에 소독제(1만L)·자가 진단 키트 1천 개 등 방역물품도 후원했다.

또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사내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해는 임직원 3천421명이, 지난 2월에는 1천161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도로공사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헌혈 캠페인을 벌여 위급 상황에서 혈액 부족으로 아까운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연계 일상 회복 노력

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 경북 김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지난 4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55억 보 걷기 챌린지'에 총 4만6천여 명이 참여했다. 100억 걸음을 조기 달성하면서 경북 취약계층 아동 1천100명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농협과 연계한 과일과 채소, 쌀을 활용해 지역 농가에 보탬이 되는 한



3 55억 걸음 걷기 캠페인 달성 기념 경북 취약아동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지원 4 코로나 방역에 힘쓰는 김천시 보건소 의료진에게 전달한 간식 꾸러미 5 중소기업 '브랜드K' 제품 연계한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편 어린이날에 소와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손길을 내밀었다.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천시 지역 소상공인 120곳에 긴급생활자금 6천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금액을 올려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노인을 위한 특별 마음식 등 동반성장물과 중소기업 '브랜드K' 제품 5천만 원 상당을 설에 이어 추석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누리상품권 3천500만 원 상당을 지역 복지기관에 분기별로 지원한다.

공부방 꾸미기 등 공사 대표 프로그램 확대

도로공사는 '공부방 꾸미기'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작년까지 102가구에 책상, 걸상 및 책꽂이를 선물했다. 올해는 112가구에 대상자를 늘려 미래를 위한 공부방 꾸미기를 지원했다.

'ex사랑기금'은 도로공사의 '김천 하이패스 배구단' 정규리그 승리 횟수와 득점에 따라 직원 성금이 적립된다.

성금은 매년 김천시 지역 내 희귀질환을 앓는 저소득층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로 쓰인다. 올해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난치병 어린이 14명에게 4천300만 원 치료비를 지원했다.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되는 해피 펀드는 매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히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하절기(7월)·동절기(11~12월)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 대상으로 식료품 및 계절 용품을 후원하고 있다. ♡



4



5

고속도로의 스마트한 진화! 한국도로공사가 만들어갑니다

고속도로 디지털화, 복합환승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물류 구축, 고속도로 입체 개발

